

#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6절 - 4장 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

---

2. 자아가 깨지고 주님의 죽음에 연합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십니다. 조그만 고통에도 흔들리던 '연기' 같은 인생이 결코 요동하지 않는 성전의 '기둥'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여전히 내 지식과 소유를 의지하느라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연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만 반석 삼는 '기둥'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로 단호히 넘겨버려야 할 생각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

---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

---

---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 Sermon of the Week:

Transformed by the Power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Passage: Song of Solomon 3:6-4:6 (NIV)

Date: July 12, 2026

Pastor: Youngmin Suh

Today's passage asks: "who is this, coming up from the wilderness...rising like...smoke?" The answer matters more than it first appears. It's a picture of what happens to anyone who has walked through hardship with God. Initially, most of us live like smoke: one small setback and watch how quickly we unravel. David knew this well. He spent years running from Saul in the wilderness, and in Psalm 62, he describes himself as a leaning wall, just one push from falling apart. That's most of us when trouble presses in. That's what it looks like to be controlled by the "old self" rather than anchored by God.

The wilderness i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is is exposed because nothing gets healed while it stays hidden. Jesus said a grain of wheat has to fall to the ground and die before it can bear anything. Inside that grain there's already a seed of life, but it's wrapped tight by the husk, and only pressure can break that husk open so that growth can happen. That's what hardship does in a person. Financial difficulties, an illness, a coworker who makes life difficult, or a conflict at home that won't resolve—these are the conditions God uses to reach something buried underneath the composed version of ourselves we present to the world.

When our composure breaks, it rarely feels spiritual in the moment; it feels like exposure. But the wilderness doesn't manufacture flaws in us so much as reveal ones that were hidden until pressure brought them to the surface: the grudge we can't let go, the panic from a diagnosis of cancer, the idol we'd built out of money, a relationship or our own competence. The Israelites didn't know that revering a golden calf was something in them until difficulties in wilderness showed them what they'd already been worshiping. The same is true for us. What surfaces is something that was always there. The point is not to shame them for having it or getting them to hide it better. The point is that nothing gets healed until it is acknowledged. Only once a person can honestly say, "this is really what's in me," can it actually be surrendered rather than managed. The blessing is that now we can see what has been hidden in us, and what we can see, we can confess and finally surrender.

That surrender is where the cross does its work. Sin is forgiven by the blood of Christ, but the "old self"—the part still trying to run the show—only gets dealt with by death. That

surrender is the only way out. Our efforts will not dissolve the self; only the death that Christ already died on our behalf does that. And we are called to take up this death daily, day by day, layer upon layer. Paul calls this "dying daily". Every layer that is surrendered makes room for the Spirit to fill, and slowly, what was smoke becomes a pillar—the kind Revelation says will never be moved out of God's temple again.

This is also why the question "Who is this?" gets answered the way it does. A life that used to run on self-reliance, on being its own answer to every problem, becomes a life where Jesus Christ is the answer. He becomes the One seated at the center of our lives, and a person once defined by their uncertainty is now simply described by who they belong to.

This is the purpose of going through the wilderness. Not more strength to hold ourselves together, but having less of the self to hold. Wealth, reputation, and the things we usually rely on to feel safe are fragile, because *we* built them. But a life resting on Christ becomes the one thing that can't be shaken loose, because it was freely *given* to us. Fear of failure and even fear of death loosen their grip once we're not the ones holding up the burden of everything.

But this transformation was never meant to happen alone. In 1 Cor 12, Paul makes this clear through the image of the body—when one part suffers, every part suffers with it, and when one part is honored, every part shares the joy. That's not being sentimental about community; it's what it actually means to be unified with other believers, not just seated near them. A hand doesn't resent a foot for going first. It doesn't have to, because it isn't a separate entity competing for recognition. The "old self" is precisely what makes people compete, compare, and insist on being right in a marriage, friendship or church. When that self is surrendered, what's left isn't a room full of identical people—it's people still different from one another, but no longer fighting to be the center.

If you're in a wilderness season right now, resist the urge to treat it only as an obstacle to get past. Whatever pressure you're under, whatever has surfaced in you that you'd rather not admit, acknowledge it, confess it and surrender it to the cross rather than managing it alone or letting it stay buried. And it will take time, it's solved by confessing what's actually there and handing it over to Christ, again and again, as often as it resurfaces—because it will. That's how smoke becomes a pillar, one surrendered thing at a time, until what's left in you is no longer smoke at all, but a pillar of stone that stands strong against the wind.

# 삼나소식

나성교회



삼성교회

7월 26일 2026년

NASUNGCHURCH.NET

117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아가서 3장 6절 - 4장 6절

날짜: 7월 12일, 2026년

설교자: 서영민 목사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솔라미 여인의 사랑 관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거듭난 성도 간의 영적인 사랑, 그리고 그 생명이 성장해 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성도는 이제 옛 생명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처럼 남아 있는 혼의 자아가 영 안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이 옛사람은 오직 십자가로만 깨어질 수 있으며, 성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속사람의 성령이 삶 속으로 흘러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싹을 틔우듯,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춰 광야의 생활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말씀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미움, 절망, 탐심(우상)이라는 자아의 괴물이 드러납니다. 진리의 생명이 임해야만 나의 참혹한 실상을 깨닫게 되며, 사랑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역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자아가 폭로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자백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아를 끊어주십니다. 혼의 생명이 부인되는 만큼 영 안의 예수님이 마음과 감정, 생각의 주인이 되시며, 성도는 비로소 인생관, 물질관, 생사관이 변화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

면 세상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은 단번에 거듭나지만 혼의 생명이 처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체질화되면 겉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평강이 임합니다. 따라서 광야의 시험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아가 깨져 육이 처리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며, 내 영과 마음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주인이 되실 때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가서의 솔라미 여인은 이러한 광야 훈련을 통과하여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의 군사를 상징합니다. 훈련받기 전에는 조그만 고통에도 흔들리는 불안정한 '연기' 같은 인생이었으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통과하면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기둥'으로 변화됩니다. 고난을 뜻하는 몰약(주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내가 죽을 때, 내 안의 예수가 부활의 능력인 유향으로 살아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와 연합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자 목자가 되셔서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가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처이자 성화된 성도의 심령이며, 구속받은 교회를 뜻합니다. 가마의 백향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은 기둥은 구속과 십자가를, 금 바닥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며, 보좌의 자색 담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 단호히 십자가로 넘기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은 기둥처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또한 보잘것없던 솔라미 여인이 신부가 되어 솔로몬과 함께 가마에 앉은 것처럼, 성도 역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앓은뱅이를 일으켰듯, 성도가 구할 것은 세상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이요, 성령을 생수의 강처럼 흘러보낼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교회는 개별적인 독립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연결된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연합된 공동체이기 에 성도 간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악과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주님의 생명으로 서로를 치료할 때 온전한 천국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여도 각자의 자아가 깨지고 예수만 남으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며, 그 충만한 생명의 흘러남을 통해 세상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 보좌에 앉은 자들이므로, 그 전능하신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간 소 식

-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아래층 중고등부실에서 2026년 대심방을 위한 교구장과 구역장 합동모임을 갖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수첩 제작을 위한 교우 등록을 오늘로 마감합니다. 오늘까지 교우들께서 등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일에는 8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지난 주에 침례를 받은 교우들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침례 증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예배 후 식사는 브레아 구역 교우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교우수첩 정보 입력 (오늘 마감)

나성교회 새로운 교우수첩 제작을 위해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약 1-2분 소요). 가족 구성원 (배우자, 자녀 포함)은 각자 한 번씩 입력해 주세요. (문의: 홍성훈 형제 562-746-7970)



나성교회 연락처

+1 562-690-7979

<https://nasungchurch.net>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홈페이지에서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 삼나소식)

| 나성교회 예배안내       |            |            |
|-----------------|------------|------------|
| 모임              | 시간         | 장소         |
| 주일예배 1부         | 오전 8시      | 대예배실       |
|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 대예배실       |
| 영어부 예배 (RHBC)   | 오전 11시10분  | EM 예배실     |
|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 대예배실       |
| 유치, 유년부 (Seeds) | 오전 11시     | Seeds Room |
| 중, 고등부 (Abide)  | 오전 11시 10분 | EM 예배실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와 중국 길연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전국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장금숙 집사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 골절상 (6주 진단)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옥순 집사

오른쪽 약지 발가락 골절로 치료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아영 사모

자궁선근증으로 인하여 자궁을 적출(개복)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양희 집사

(한나선교회)

심장 판막 수술과 그로 인해 발생된 부정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희정 집사

(한나선교회)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옥경 집사

(한나선교회)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B 집사

(2여선교회)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신자 집사  
(한나선교회)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오중 집사  
(3남선교회)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열로 인한 다리 부종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미리암 리

(에스더선교회)

난소암과 대장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학철 목사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 후유증과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시용 장로

(모세선교회)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연경 형제

(여호수아선교회)

방광암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오른쪽 어깨 탈골 재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 감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선교회)

무릎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